

완도군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속도낸다

생명공학 기술 적용 식품·의약·화학·에너지 고부가가치 창출
해양바이오 공동 연구소 등 26개 기업 입주 제품 개발·사업화

완도군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도군은 원물 생산 중심에 머무르던 해조류 산업의 산업적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 등 해양 생명 자원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해 식품·의약·화학·에너지·자원 분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해양바이오산업 글로벌 시장은 2023년 72억 달러(약 10조원)에서 2030년 128억 달러(약 18조원)로 연평균 8.5%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조류 기반 시장은 연평균 성장을 10.5%로 해양바이오산업 전체 성장률보다 고성장이 예상된다.

정부에서도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을 제시하며 완도를 해조류 특화 산업 거점으로 육성 중이다.

완도군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수산종자연구소),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본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등 연구 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에 따라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2023년 준공) ▲해양 헬스케어 유효성 실증 센터(2023년 개소) ▲전남바이오진흥원 해양바이오본부

부회장품 시제품 생산 라인(2023년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에는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해 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2026년 준공 예정),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설계비 확보) 등 대규모 시설 건립도 추진 중이다.

시설들이 완공되면 기업이 요구하는 표준화된 고기능 해조류 원물 제공은 물론 해조류 소재 추출·대량 생산 지원까지 이뤄져 완도가 전국 단위 해조류 바이오 소재 공급 기지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중심 해양바이오산업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시설 완공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해양바이오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완도군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 전경.

영암군, 주민주도형 관광 활성화 '으뜸두레' 4년 연속 배출

'아미아미팜' 2026년 관광두레 선정

영암군 주민사업체 '아미아미팜'이 최근 문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주민주도형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2026년 관광두레' 으뜸두레로 최종 선정됐다.

으뜸두레는 공동체성, 지역성, 지속가능성, 콘텐츠 경쟁력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는 관광두레 최고 등급으로, 올해는 전국 250개 주민사업체 중 단 8곳만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으뜸두레 선정으로 영암군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으뜸두레를 배출한 전국 유일의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2023년 '우리 술과 힐링', 2024년 '예담은'과 '미술관아래', 2025년 '예담은'에 이어 2026년 '아미아미팜'이 명성을 이었다.

2026년 영암 관광두레에는 ▲예담은 ▲미술관아래 ▲아미아미팜 ▲우리 술과 힐링 ▲고령 ▲월출산 꽃따리농장 6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 고유 자원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광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으뜸두레인 아미아미팜은 영암의 대표 특산물인 멜론으로 '미니케이크 만들기' '수확 체험' 등 체험형 관광 상품을 내놓았고, 지난해 영암한옥문화비엔날레에 지역 대표 체험 브랜드로



'으뜸두레'에 선정된 영암군 주민사업체 '아미아미팜'.

참여해 인기를 끌었다.

한편 '클리 영암, 영암에 놀러 가지'를 비전으로 한 영암 관광두레는 지난해 관광두레 프로듀서 문화부장관상 수상, 영암·화순 협업 브랜드 '오로시꽃담은' 관광두레 기념품 콘테스트 기념품 선정 등의 성과를 올렸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무안군 지방물가 안정관리

4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2천만원 확보

무안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선정으로 무안군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소 할성화, 지방물가 안정 노력 등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뤄졌다.

무안군은 고물가 상황 속에서 군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인 물가 안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봉투 가격과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했다.

또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소 이용 환급 지원 이벤트를 추진하고 물가모니터제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물가 동향 관리에 나섰다.

영광군, 군민평생교육 프로그램 30일까지 교육생 모집...강사비 지원

영광군이 군민 개인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6년 군민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

영광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12인 이상이 참여해 취미·교양, 지역특화, 건강, 문화·예술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강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사가 직접 강의계획서와 수강생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군청 인구교육정책실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신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해 평생교육의 취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



무안군 관계자들이 지난해 펼친 물가안정 동참 캠페인 모습.

〈무안군 제공〉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안정에도 힘써 왔다.

김산 무안군수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꾸준히 추진해온

노력이 평가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물가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완도군,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확대

1인 최대 4만3000원까지 지원

완도군이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은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업체가 완도군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해 음식점, 숙박업소, 완도해양지유센터, 특산품 판매장 등 이용할 경우 지원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 10명 이상 유치 시 당일 기준 체도(숙지)권은 1인 당 1만 2000원, 섭 지역은 1만 5000원이 지원된다.

1박의 경우 체도권 1만 5000원, 섭 지역은 1만

8000원, 2박 이상일 경우 체도권 1만 8000원, 섭 지역은 2만 1000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완도해양지유센터를 경유할 시 당일 체도권은 2만 5000원, 섭 지역은 2만 80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완도해양지유센터를 경유(1박 2일 이상)하는 '완도 치유 관광'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관광객 1인당 5000원 추가 지원한다.

여행사는 여행 3일 전까지 단체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를 군에 제출해야 한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는 해양과 산림 치유, 섭 테마 치유가 어우러진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섭으로 단체 관광객 유치로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해남군 빈 점포 창업하면 월 50만원 지원

10~15개소...다음 달 27일까지 신청

해남군이 경기 침체로 늘어나는 빈 점포를 활용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을 돋기 위해 '빈 점포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남군은 해남읍 소재 빈 점포에 창업 예정인 소상공인 10~15개소를 선정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임차료 지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해남읍 내 상점가의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규창업 임차료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해남읍 내 창업 계획이 있는 예비 창업가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목포시-시의료원,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협약

대상자 발굴·방문 진료 등 협력

목포시가 목포시의료원과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장기요양 돌봄을 지역사회 안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재택의료 대상자 발굴, 의사·간호사 방문 진료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재택의료 모델을 지역사회에 정착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지난 19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버스'의 개통식을 열고, 출발을 알렸다.

〈진도군 제공〉

진도군, '찾아가는 건강버스' 개통식

원스톱 이동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버스'의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진도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 보건의료 인력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운영하는 '원스톱 이동형 보건의료 서비스'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과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건강버스에서는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 한방 진료와 상담 등 기본 쳐치를 비롯해 혈압, 혈당, 골밀도검사 등이 진행되며 만성질환을 예방하

기 위한 운동, 영양, 정신, 치매 인식 교육 등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등록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의료기관과 연계된 사후관리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찾아가는 건강버스의 운영 일정과 방문 마을은 읍면사무소와 진도군 보건소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강버스는 주민 생활 속으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원스톱 보건 의료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